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노산문화제서 대국민 안전캠페인 전개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9.26 09:57

어르신 248명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로 디지털 안전망 확보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25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8회 노산문화제'에서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8회 노산문화제'에서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이 마련한 '시설 홍보 및 대국민 안전캠페인 부스'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군청 안전교통과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가 협력해 추진됐다.

공단은 관광시설 홍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안전 홍보물품 배부, 팝콘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공단 직원들은 어르신 개개인의 휴대전화에 직접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 앱(시티즌 코난)'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248명의 어르신이 실질적인 디지털 안전망을 갖추게 된 점이 큰 의미로 평가된다.

공단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ESG 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안전 혜택 제공에 주안점을 뒀다”며 “지역 축제와 연계해 공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군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25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8회 노산문화제'에서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